ISSN 1976-8117

Muslim-Christian Encounter

Women In Islam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Journal

Volume 5, Number 1, August 2012

김아영 하갈의 딸들: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권지윤 한국 이슬람여성에 대한 이해 : 유입유형과 이슬람여성의 갈등이슈를 중심으로

김정년 Wahhabism : Its imposition and performance in the current status of women in Sadui Arabia

박형진 이슬람과 기독교의 선교역사에 대한 비교연구: "번역이론(Translation Theory)"의 시각에서

Colin Chapman Evangelicals, Islam and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Peter Riddell Building Bridge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Stories of Engagement and Understanding

Book Review

임스데반 The Future of Islam

Muslim-Christian Encounter

Muslim-Christian Encounter

Editorial Board : Ah Young Kim, Ahn Shin, Chae Ok Chun, Caleb C. Kim,
J. Dudley Woodberry, Hyung Jin Park, Tim Hyunmo Lee
Researcher : Abraham Cho, Jung Nyun Kim, Jee Yun Kwon, Kyung Hee Lee,
Hyun Kyung Lee, Hyung Nam Jung, Moon Sang Cho, Sung Eun Park,
Shin Suk Kim, Steve Yim, Paul Kim, Howard Shin, Jae Hoon Hong
Design : Sun Mi kim
2012 All rights reserved,
ISSN 1976-8117
E-mail : ttcis@ttgu.ac.kr
Homepage: http://ttcis.ttgst.ac.kr
Tel. : 02) 570-7563

contents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Journal

Volume 5, Number 1, August 2012

Women In Islam

● **권두언** / 김아영

● **논문**

김아영 / 하갈의 딸들: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권지윤 / 한국 이슬람여성에 대한 이해 :
유입유형과 이슬람여성의 갈등이슈를 중심으로

김정년 / Wahhabism : Its imposition and performance in
the current status of women in Sadui Arabia

박형진 / 이슬람과 기독교의 선교역사에 대한 비교연구:
"번역이론(Translation Theory)"의 시각에서

Colin Chapman / Evangelicals, Islam and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Peter Riddell / Building Bridge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Stories of Engagement and Understanding

● **서평**

임스데반 / The Future of Islam

● **이슬람 신간소개**

● **원고작성규정**

● **윤리규정**

권두언

한국 이슬람 연구소가 2012년 저널 통권 6호의 발간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세계는 온통 한 편의 무책임한 동영상으로 인한 폭력과 반목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아랍권에 반미정서를 확산시킨 유튜브 동영상 '무슬림의 무지함 (또는 순진함) (Innocence of Muslims)'은 유대계 미국인 부동산 개발업자 샘 베이실(53)이 각본 및 감독을 맡아 캘리포니아에서 제작한 두 시간짜리 영화로 유튜브에 올라 있는 동영상은 영화 중 일부인 14분 분량이다. 지난 7월 초 유튜브에 공개됐을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아랍어 더빙 버전이 올라오면서 파문이 확산되어 이미 조회수 4만여건을 넘겼다고 한다.

문제는 과거의 모든 경우에서처럼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묘사에서 비롯되었다. 무함마드를 어린 아내를 둔 바람둥이이자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소아성애를 승인한 변태성욕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인들에게 신발로 등짝을 맞는 무책임한 가장이자 피묻은 칼을 든 도살자로 묘사했고 심지어 할머니의 팔 다리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에 처하기도 한 냉혈한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콥틱 기독교 신자로 자신을 밝힌 베이실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슬람교를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익명의 유대인 약 100명이 제작비 500만달러(약 56억원)를 지원했다"며 "앞으로 이 영화를 200시간짜리 연속극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당당히 밝힌 바 있으나 자신의 예상을 너머서 아랍권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잠적해 버렸다. 이 후 프랑스 한 언론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무함마드를 풍자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어서 이제 무슬림들의 시위는 아랍을 넘어서서 범 이슬람권으로 확대되어 반미, 반서구 시위로 확산되어가며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베이실의 동영상 내용이 출연 배우들조차 항의를 할 정도로 원본과는 전혀 다르게 편집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동영상의 내용은 서구 비이슬람권 세계의 오래된 무함마드 관을 반영한 것이며 그 비판과 비하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성에 대한 무함마드의 태도, 혹은 이슬람의 태도가 놓여 있는 것이다.

사실 알 카이다와 오사마 빈 라덴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Global

Jihadhist Movement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직전까지 급격하게 지지 기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아랍 알카이다(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의 본거지라고 하는 예멘에서의 최근의 상황변화에서처럼 오사마 빈 라덴의 사후 더욱 급격히 그 지지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던 중이었다.* 지나간 과거 역사에서처럼 혹독하고 철저한 이슬람식 통치를 받았던 지역일수록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베이실의 동영상은 그동안 어렵사리 잦아들게 했던 Global Jihadhist Movement에 명분을 제공한 격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슬람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부족과 편견, 그리고 그것의 미숙하지 못한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나간 14세기 동안의 오래된 몰이해와 반목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도 하다.

다른 모든 이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의 시각과 해석은 큰 차이점을 보인다. 한 예로 무슬림 여성 억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히잡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한 현대문명 속에서 이슬람의 신실성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비무슬림들에게는 여성다움과 인간다움을 부정당하는 억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일부다처, 명예 살인 등 이슬람의 모든 반여성적이고 비인간적인 관행들로 표현되는 무슬림 사회 내의 성별위계와 성차별을 유지시켜온 근본적인 역할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수행해왔다고 하는 것이 비무슬림들의 비판의 핵심인 것이다.

한국 이슬람 연구소 저널 6호의 주제는 무슬림 여성이다. 세 편의 논문이 이 주제에 할애되어 무슬림의 여성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논문으로서 번역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에 대한 선교사적 비교연구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선교역사의 차이점을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012 년 9월 17일자로 발간된 TIME지는 cover story로 The End of Al-Qaeda?라는 제목 아래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번 호에서 특별히 감사한 일은 한국 이슬람 연구소의 창립 초기부터 연구소의 활동과 사역을 격려해온 해외학자들의 논문을 초청논문으로 싣게 되었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에 평생 헌신해온 콜린 채프만 박사와 이슬람역사 전문가인 피터 리들 박사에게 권두언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 이슬람 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학자들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한국 기독교 내에서의 이슬람 연구와 기독교-이슬람 관계 연구가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시 한 번 논문을 보내주신 저자들께 감사를 드리며 녹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연구와 섬김에 한결같은 성실함을 다해주는 권지윤 책임연구원과 조경자 행정연구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횃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김 아 영